

#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재도전... 4대 첨단전략산업 추진

### 전남도, 바이오·데이터클러스터·해상풍력 등 미래 먹거리 확보 포기한 공모 사업도 다시 추진... 시장 선도·지역 경제 활성화 총력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데이터클러스터, 해상풍력을 꼽고 추진 전략을 다잡고 나섰다. 정부 공모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광주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모조차 응하지 않았던 기존 방침에서 전환, 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각오다.

전남도는 27일 박창환 정무부지사 주재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차전지와 데이터 클러스터, 첨단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발전 전략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을 앵커기업으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 소

재 기업이 집적화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180만평) 조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세풍산단(45만평)을 직접 조성해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해 '이차전지 거점단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뛰어난 입지 여건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조차 하지 않아 특화단지로 지정된 다른 지역과 견줘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유치를 결집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남도는 애초 광주·전남 상생 1호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하기 위한 광주시와의 '상생 협력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항, 전구체 가공 집적단지를 새로 만들어 한 해 전 기차 800만대 분량의 전구체를 양산하겠다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된 것을 감안하면 전혀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합평에도 빛그린산단에 20만평 규모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아 나주지역 관련 이차전지 기업들과 연계해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남도는 또 정부가 지난 5월 바이오 분야 첨단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가로 추진키로 한 점에 맞춰 화산 일대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데이터클러스터 분야도 확대 육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기존 조성계획 외에 합평 월야면에 일반산단(20만평) 규모로 신규 데이터센터(20기·800MW) 전용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목포 유치 입장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남도는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기업인 베스타스가 글로벌 해운사 A사와 공동으로 목포신항만(20만㎡) 부지에 4000억원을 투자해 15MW 나셀 조립공장 등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8월 말까지 이사회 승인 절차가 이뤄지면 9월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내년 1월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파업’ 시립제2요양병원, 환자 옮기기 분주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남구 노대동 시립제2요양병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앰블런스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병원측은 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진료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4일 전체 입원환자에게 전원 및 퇴원 안내문을 보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공직 29년 마무리... 지역 발전 힘 쏟겠다”

###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퇴임... 향후 정치 행보 주목

문금주(사진) 전남도행정부지사가 28일 이임식을 끝으로 29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한다.

문 부지사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열린 마지막 실국장 정책회의에 참석, 김영록 전남지사, 동료 공직자, 도의원, 언론인, 22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직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거론하며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고 했다.

문 부지사는 2개월 전 명예퇴직을 신청하고도 집정리는 커녕, 주요 현안을 챙기고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지역을 돌리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29년의 공직생활을 지낸 만큼 기억나는 일이 무척 많다고 했다. 보람찬 일도, 아쉬운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문 부지사는 특히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 이후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공항 통합 및 군 공항 이전을 통한 공항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았던 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전남 현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부지사는 보성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 29년 간 광주시와 행안부, 전남도를 오간 행정 전문가다.

지난 2021년 7월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뒤 뛰어난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도의회, 사회단체, 언론계와 두루소통하면서 도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인적네트워크, 애항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는 입장을 밝혀 퇴임 이후 정치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부지사는 “지역의 성장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회가 남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뛰어만 드시 기쁜 맘으로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 전국·장애인체전 문화예술의 장으로

### 열린음악회·수목비엔날레·대한민국예술축전 등 행사 풍성

전남도가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전남의 자연과 문화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는 코로나 일상회복 등 상황을 감안해 약 4만 명의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많은 관람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체전 기간은 물론 체전 전후로 코로나에서 벗어난 국민과 대회 참가를 위해 맘 흔들려 선수단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활기를

북돋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함유하는 문화체전으로 치른다는 것이다.

먼저 9월 12일 양대 체전 주 개최지인 목포에서 대국민 프로그램인 지상파 방송의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이어 9월 18일과 19일 한반도 백두대간의 끝이자 대양의 시작점인 해남 땅끝과, 전남의 최첨단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산업 중심지 고흥에서 성화 특별채화 행사가 각각 열린다.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의 성화 공식 채화에 앞서 개최하

는 특별채화 행사에서는 칠선녀 성무, 해남 땅끝과 우주산업을 상징하는 체전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통해 양대 체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주 개최지인 목포에서는 전국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될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단체 공연으로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9~10월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10월 6~8일 여수에서 2023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예술인이 총집합하는 2023 대한민국예술축전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목포 일대에서 열린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김형미 구의원 ‘서구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김형미(민주·서구가)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 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시책일몰제 조례안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로,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서구의회는 일몰대상 시책에 해



당한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이같은 점을 들어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서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해 일몰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해야한다. /유연재 기자 yjyou@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